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1 '신기촌 사람들'				
구술자명	이태승	면담자	이경희, 조영숙		
면담장소	영광교회 인근 카페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8년 11월 11일 오후1시	회차	1	시간	50분 38초
자료번호	Mi chuholCA-07-00001165				
구술 개요	62년생으로 주안동이 고향임. 주안동의 옛 지명이 '사미리' 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어머니 세대가 진흥요업에 근무했음. 초창기 사동에서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주거 환경이 계속 변화함. 주안2동(몬머리)는 원래 구릉 지대이며 물이 많았음. 신기촌이 형성되며 5번 버스 종점이 신기시장이 됨. 본가는 주안3동으로 잠시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인천에서 근무함. 개발로 동네가 변화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낌. 학창시절부터 도서관에 많이 다님. 인천의 원주민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름. 지역에 애정과 주민의식을 가지고 잘 가꾸어나가야 함.				
주요 색인어	주안동, 부평 이씨, 집성촌, 사미, 사미 축제, 학산학연구회, 사진전, 신기촌, 화장터, 중앙도자기, 진흥요업, 사동, 몬머리, 인주대로, 수봉산, 시민회관, 신기사거리, 5번 버스, 본가, 자원봉사, 강사, 2000년대, 인천지하철, 율목도서관, 연수구, 남동구, 원주민, 주민의식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소개			00:00:00~ 00:04:33	▷ 음성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년생으로, 주안동이 고향임. - 본관인 부평 이씨는 임진왜란 이후 미추홀구 전반에 집성촌을 형성함. - 주안동 이전의 지역명이 '사미리' 임. 사미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명보주유소 일대는 80년대에 개발됨. - 사미는 선비 '사' 자, 아름다울 '미' 자로, 아름다운 선비가 나온 마을이라는 의미임. 					
2. 인천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			00:04:34~ 00:1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비마을도 집성촌 개념으로 400년 된 종씨. - 제운 선생 집성촌은 백학초 앞 신동아아파트 3차 자리. 현재 제운 사거리로 부르는 위치와 상이함. - 용현동 강씨 정려: 병자호란 당시 낙섬에서 청나라에 맞서 의병 활동 중 순직한 남편을 따라 투신한 강씨 부인을 기념하는 정각. - 기록으로 남아 있는 가족사는 없음. 80년대 개발이 이루어지며 주민, 건물 등이 모두 사라짐. - 7회째 개최되는 사미 축제. 동사무소가 주관하여 10월경 어르신 					

노래자랑, 음식 대접 등으로 진행됨.		
3. 지역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산학연구회 강사로 14명이 활동 중. -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때 구 자원봉사를 하며 촬영 및 기록. - 매년 2~3회 그룹 사진전을 개최함. 한중문화관에서도 2회 전시. - 옛날 소래포구, 수인선 철길 등을 찾아다니며 자료화. 	00:10:46~ 00:14:04	
4. 신기촌 일대에 대한 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용아파트 앞으로 화장터 굴뚝이 있었음. - 중앙도자기(진흥요업)이 현재 쌍용아파트와 진흥아파트 자리. 신기촌으로 유입되었던 어머니 세대들이 진흥요업에 근무했음. - 신기촌에서도 3~4번 세대교체가 이루어짐. - 초창기에는 동인천의 사동에서 신기촌으로 인구가 이동함. - 판잣집, 슬레이트 집, 현대식 기와집, 일반 주택, 빌라 순서로 주거 환경이 변화함. 	00:14:05~ 00:17:22	
5. 60~70년대의 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미리는 주안3동, 몬머리(못머리)는 주안2동에 해당함. - 몬머리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던 곳에 현재 주안초가 들어섬. - 용현사거리에서 인천고로 이어지는 인주대로가 과거 논이었음. - 몬머리는 물이 많다는 의미가 있음. 주변으로 논이 많았음. - 수봉산에서 내려오는 물에서 미꾸라지를 잡기도 함. 현재 복개되어 인주대로가 됨. - 수봉산에 물이 많았고 수로와 천이 복합된 개념으로 흐름. - 주안2동은 원래 구릉 지대로 60년대 초반부터 시멘트 집이 형성됨. - 시민회관에서 내려오는 길이 원래는 신기사거리의 옛날 우리은행 자리까지만 이어져 있었음. - 원래 논이었던 주안사거리 자리에 구도리가 생김. 신기촌이 형성되며 5번 버스가 주안사거리, 금성연마, 의료보험공단을 거쳐 신기시장을 종점으로 함. 	00:17:23~ 00:22:45	
6. 인천에서의 일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가는 주안3동으로, 6살 때 주안2동으로 이사함. 주안에서 계속 살았음. - 어머니는 85세로, 제주도 출신. 70세까지 일을 하심. - KT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3년을 타지에 있다가 인천에서 다시 근무함. - 퇴직 후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학산학 강사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00:22:46~ 00:29:22	

7. 2000년대 이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년대에는 도시개발로 단지가 형성되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빌라를 많이 지음. - 개발한 지 50년도 되지 않은 주택을 헐고 빌라를 짓는 데는 정책의 영향도 있었음. - 수봉산도 고가를 짓기 위해 산을 깎아서 뚫는 등 형태가 변형됨. - 개발로 동네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원주민으로서 아쉬움을 느낌. 	00:29:23~ 00:32:43	
8. 어린 시절의 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안2동에 살 때 방과 후 동네의 친인척 집에서 밥을 먹기도 함. 현재는 대부분 떠남. - 학창시절에는 인천지하철이 생겨 한 달에 한 번 서점에 감. - 당시 인천에는 을목도서관밖에 없었음. 중앙도서관, 주안도서관, 화도진도서관은 80년대 초중반에 생김. - 최근에는 화도진도서관에 자주 감. 화도진도서관은 인천사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함. 	00:32:44~ 00:40:59	
9. 지역에 대한 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초 학습지를 배부하며 남구(미추홀구) 지역을 걸어 다니며 눈으로 관찰했던 것이 지금 활동의 근간이 됨. - 과거 남구(미추홀구)였던 곳이 연수구, 남동구로 분리됨. - 철거되거나 새로 짓는 건물, 도로를 중심으로 촬영함. - 인천의 원주민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름. -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애정과 주민의식을 가지고 잘 가꾸어나가야 함. -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00:41:00~ 00:50:38	